

2019 하반기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9. 12. 17.(화) 18:00 ~ 19:00
장 소	기획상황실
참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19명 중 11명 참석○ 아동청년과장(간사) 및 청년동행팀 직원
안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 청년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결과 보고○ 2020 청년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
회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천구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p>2019. 12. 17.</p> <p>금천구 청년정책위원회</p>	

□ 회의내용

< 위원장 >

- 청년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잘 활용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 또한 청년들에게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청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함.

< A위원 >

- 특별히 건의할 사항은 없고, 여기 계신 청년활동가 및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왔음. 관이나 구의원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는지가 문제임.
- 청년미래기금도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음. 기금까지 마련해서 청년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고민임.

< B위원 >

- 금천구가 타지역과 다른 점은 대학교가 주변에 없고, 일반직장인, 프리랜서 등이 많음.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시각에서 조금 벗어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으면 좋겠음.
- 저희 무중력지대 G밸리가 내년에는 금천구글로벌센터로 이전할 계획인데 금천구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음.
- 금천구에 청춘빨당이 있지만, 타켓팅하는 대상은 다름. 청빨은 초기청소년에서 중기청년이라면, 무중력지대 G밸리는 G밸리기반 사업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협업할 수 있으면 좋겠음.

- 무중력지대 G밸리가 금천구에 있지만 G밸리라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구로문화재단이랑 협업을 한 사례가 있음. 타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2020년에는 금천구나 금천구청년네트워크, 청춘빨딩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음.

< C위원 >

-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내년에 3만명 늘릴 예정임. 실제 수당을 받는 미취업상태 청년들이 한 해에 5배가 넘는 수치임. 따라서 금천구에서 미취업상태에 있고, 수당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상황임.
- 그러나 3만명의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수당과 관련되는 금액 지원 외에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연계하는 콘텐츠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음. 그런 부분을 자치구 단위의 청년공간들이 청년활동 사업에 많이 연계해주고, 청년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계도 가능하면 좋겠다.

< D위원 >

- 앞에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눈에 보이는 인프라는 거의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내년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된 거 같음. 저는 소프트웨어쪽 플랫폼 비즈니스를 8년 동안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방향이 작년초부터 온라인 플랫폼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음. 법정의무교육 같은 것도 실제로 오프라인 집합교육에서 온라인상으로 바뀌고 있음.
- 인프라가 자리 잡히면 청년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통도 할 수도 있고, 청년들 교육도 온라인상에서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음. 시장상황도 맞는 거 같고, 금천구 청년정책 자체도 온라인에서 플레이를 키우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우리 금천구가 조금 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아동청년과장 >

-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상·하반기 청년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청년들이 교육, 특강을 많이 선호함. 올해 청년 대상 특강을 7회 추진했는데 사실상 집합교육의 어려움을 느꼈음.
- 청년들이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구직활동, 학업 등 시간 제약 때문에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올해 해왔던 교육을 어떻게 보완하여 추진해야 할까 고민중임.

< E위원 >

- 금천구 청년정책에 대해서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음. 첫 번째는 좋은 정책도 있고 제안도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애프터서비스까지도 감안해서 계획 수립해야 함. 그 예로 대명시장의 청년방앗간이 처음 생겼을 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 아까운 생각이 있음. 행정이 잘 만들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니 지나가는 사람도 불편함. 이 사례처럼 콜라보홀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도 계획을 잘 세워야 함.
- 또 한가지 제안한다면 2022년에 청년콜라보홀이 완공이 되면 청년들의 인성교육을 하면 좋겠음. 청년들의 큰 문제는 인성교육이다.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이 안되고, 공부만 가르치다보니 사과할 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콜라보홀 조성되면 금천구에서 먼저 인성교육을 시작하면 좋겠음. 교육은 반복교육이 제일 좋음. 단기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한다면 금천구 청년이 가장 예의바른 청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F위원 >

- 저는 23살인데 제 나이 또래 입장에서는 나이를 한 살만 더 먹어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진다.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제 주변에는 그런 지원 사업이나 청년공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나와 비슷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과 또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 그런 정보들을 몰라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음.

< G위원 >

- 청년들의 참여도나 호응이 부족한 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임. 생각해보면 청년들이 많이 바쁨.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공부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음.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온라인, 모바일 상에서 자유주제나 진로설계 등 여러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청년들이 금방 접할 수 있고, 시간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으면 좋겠음.

< H위원 >

- 청년정책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도 많았으면 좋겠음.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 등 자주 이동하는 곳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꾸준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
- 정보를 알지만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해보고 싶은데 찾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다. 저는 오프라인 독서모임을 해보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찾지 못했음. 주로 강남이나 서초지역에 많았음. 그런 정보와 접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많이 참여할 수 있다.

< 위원장 >

-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금천구에는 대학이 없음. 그래서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산디지털단지에 기능대학인 폴리텍대학 등 금천구에서 꼭 필요한 몇 개과로만 분교를 만들어서 가산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음.
- 인터넷강의 때문에 노량진 학원가와 주변 원룸이나 식당들이 망했음. 청년들이 대부분 인터넷강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을 가져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대명시장의 청년방앗간처럼 안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연구해서 청년들에게 알려줘야 함. 금천구가 청년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음.

< I위원 >

-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제안했었던 청년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거 같다. 서울시의 입장은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거버넌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들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이 서울시의 취지인데 그 취지대로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음.
- 청년네트워크가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 상황도 생기는데 당연히 업무를 하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갈등 상황에서 본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조직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이 지금은 필요함.
- 또한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 사업예산이 사실 청년팀의 예산보다 큰 예산인데 지금 담당팀은 팀장님 한분에 담당 2명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으로 직원 1명이 자율예산제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이 부분도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부분으로 담당팀의 직원을 늘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셨으면 함.

- 청춘빨딩에 지원되고 있던 뉴딜일자리사업이 내년도부터 지원이 안되는데 청춘빨딩 이용자들이 만족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자들의 근무여건 배려 등 운영시간 조정과 추가적으로 인력 배치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음.
- 청년정책의 가짓수를 줄이면 좋겠음.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용역에서도 나왔지만 자치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하고, 국가나 광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들이 할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으로 구민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창업은 취업보다 더 많은 역량이 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창업쪽으로 밀고 가는 것보다 금천구는 G밸리라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부서를 넘어서 지역경제과나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정보를 체계화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음.

< C위원 >

-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는 청년들에게 정보를 준다고 한다면 지금 정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부터 만나는 것이 필요함. 사실 수당정책 자체에 먼저 들어와서 진입한 청년들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없지 않음.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금천구 청년정책과 연결시키는 방법 필요함.
- 서울시에서는 관련 정보들을 모아서 2주에 한 번씩 보내는 문자발송으로 정보풍풍이라고 있음.
- 금천구청, 청춘빨딩 등 신뢰도가 높은 기관 중심으로 대상자를 분명하게 하고 전달하는 방법 등의 고민이 필요함. 온라인채널만 설계하면 이입자수에 대한 고민이 있음.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공략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함.

- 또한 청년미래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을 위한 공식기구가 필요하며, 기금사업으로는 문제해결형 사업이나 금천구 지역특성에 맞는 창업 있다면 특화할 수 있는 창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음.
- 그리고 청년활동가나 활동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조금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민간거버넌스 실력을 쌓기 위한 지원도 필요함. 지금까지 개개별의 청년 지원은 많으나, 활동가 지원이나 거버넌스 구축은 미비함. 실력 있는 거버넌스가 되어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청년들이 제안하는 의견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함.

< I위원 >

-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표성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청년정책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교육 관련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잭이어 등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설계해야 할지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기금은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어야 함.